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남의 흠을 애써 찾지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 말라.
자신을 잘 단속해 자신을 살펴라.

현대불교

현대불교신문
현불회·구독신청 02-2004-8212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0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9일)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불교문화대전 폐막… 언론 · 음악 · 출판상 첫 통합 시상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22 불교문화대전 폐막 및 시상식' 을 개최했다. 올해 처음으로 통합돼 진행된 불교언론문화상, 불교출판문화상, 불교음악상 시상식은 불교문화대전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올해 제30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은 공명 작가의 웹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가, 불교언론 발전에 공적이 큰 인물을 시상하는 불교언론인상은 고성 영은암 회주 정휴 스님이 수상했다. 제6회 불교음악상 '올해 불교음악인상' 은 삼귀의 · 사홍서원을 작곡한 최영철 작곡가가,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은 윤소희의 〈세계불교음악순례〉가 각각 수상했다. 사진은 내빈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스무살 된 템플스테이 경쟁력 · 인력 강화 필요"

조계종 · 국회 정각회,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세미나

템플스테이 20년 성과, 과제 짚어
운영사찰 33곳서 142곳으로 증가
참가 연인원은 600여만 명 돌파해
韓문화 세계화, 국민 힐링 등 성과
특화된 콘텐츠 육성 · 마케팅 필요
템플스테이 운영인력 전문화 요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로 20살 성년이 된 템플스테이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경쟁력 강화와 운영 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과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홍익표)는 10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템플스테이 20년의 성과와 발전 방향' 을 주제로 템플스테이 20주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이 주관했으며, 템플스테이 20년과 사찰음식 사업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과제들을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템플스테이, 국가브랜드 제고 기여

전병길 동국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는 '템플스테이 20년 성과와 발전방향' 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템플스테이가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2002년 33개소로 시작한 템플스테이는 2022년 총 142개소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참가자는 2002년 시작 이래 누적 순인원 참가자는 299만 명을 넘어섰고, 연인원은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같은 수치적 발전 이외에도 전 교수는 유 · 무형적 성과를 분석 · 제시했다.

특히, 전 교수는 △한국문화 세계화 △국민행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가치 창출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템플스테이가 성과를 이뤘다고 분석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템플스테이는 2009년 OECD에서 '세계의 성공적인 5대 관광상품' 으로 선정됐고, 독일ITB국제관광박람회 · 프랑스 MAP 등에서 2008 · 2009 · 2011년 3회에 걸쳐 아시아-오세아니아주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국가브랜드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2013, 2015년 '템플스테이 심신치유 효과에 관한 보고서' 에서 성인과 청소년에게 있어 템플스테이는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에 효과가 있었음을 상기시킨 전 교수는 "템플스테이는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도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로서 템플스테이는 사회공익 · 나눔 실천을 통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회공익 템플스테이는 2004년 신륵사와 범어사에서 시작됐으며, 2017년부터 운영 사찰과 관련 프로그램들이 급증했다. 전 교수는 "문화사업단은 톱-다운(Top-Down)방식이 아닌 운영 사찰 스스로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 공익 템플스테이를 발굴하고 자체 운영하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운영 사찰 중심의 공익템플스테이 운영 기반 확충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숫자로 보는 템플스테이 20년

템플스테이

- **2002. 5. 11** 직지사 주한외교사절단 템플스테이(첫 템플스테이)
- **33개소** 2002년 시작 당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 **142개소** 2022년 현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예비 지정 2개소, 외국인 전문사찰 28개소)
- **1554개** 운영되고 있는 템플스테이 방사 (2020년 기준)
- **205개국** 외국인 참가자 국적
- **650,000명** 외국인 참가자 수(2002~2021)
- **6,000,000명** 템플스테이 연인원 참여자

템플스테이 발전 어떻게?

템플스테이 발전 5대 전략 과제와 10대 세부 실행 과제도 제시됐다. 전 교수가 제시한 전략 과제는 △콘텐츠 및 마케팅 경쟁력 강화 △조직 경쟁력 강화 △사업 기반 고도화 △사회공익활동 기반 강화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이다. 콘텐츠 특성화를 주문한 전 교수는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을 지양하고 사찰의 환경, 특성, 운영인력 역량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을 특성화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테라하쿠, 마이데라 등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유사 템플스테이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유치 · 홍보를 위해 순수 방한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으로 나눠 마케팅 전략을 구축하고 메타버스와 유튜브를 통한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것을 주문했다.

템플스테이 운영인력의 안정화와 전문화도 주요한 발전 과제로 꼽혔다. 전 교수는 "그간 문화사업단의 지원은 분배에 가까운 형태였다"면서 "앞으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한 우수 운영 사찰에 대해 차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통해 조직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콘텐츠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템플스테이 아카데미(가칭)' 를 개설하고 불교의 역사, 문화, 예술 등 유 · 무형 전통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실무자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운영사찰 실무자들의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해설사 등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망경산사 주지 하원 스님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예약시스템 구축과 MZ세대를 위한 특화 템플스테이 운영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원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가자 중 MZ세대의 비율이 52.8%에 달할 정도로 높다"면서 "월 1~2회 MZ세대만을 위한 잔디밭 요가, 마음챙김 명상, 불멍, 인생샷 찍기 등 차별화된 템플스테이 시범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국민 행복과 치유의 플랫폼으로 템플스테이가 나아갈 것을 주문했다. 심 교수는 "이전의 템플스테이가 전통문화체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세계 시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플랫폼으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체험콘텐츠 개발, 운영인력의 전문화,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 · 연대, 사회 공익활동 확대 등의 화두를 들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사찰불교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된다

'신도전문교육기관령' 개정안 입법예고

팬데믹에 운영기준 미달 증가
운영기준 완화, 유인책 마련도
수행, 봉사도 교육으로 인정
11월 5일까지 의견제출 기간

조계종 신도전문교육기관(이하 불교대학) 운영 기준이 대폭 완화, 자율성이 강화된다.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기관 운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급증, 이에 대한 보완 차원의 정책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10월 17일 종단 공고를 통해 '신도전문교육기관령' 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불교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와 불교대학 인가, 졸업, 휴교 등 각종 행정상 규제 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 기간 신도들의 사찰 방문이 차단된 상태에서 사찰 불교대학은 사실상 휴교 상태였다. 일부 사찰이 유튜브 강좌 등을 통해 임시 방편으로 불교대학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운영했지만 대부분의 사찰은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교 및 재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 조계종 불교대학이 휴교를 2년 이상 못하도록 했다. 단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또는 포교원장 승인을 예외로 휴교가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개정안에서는 코로나 기간 각광 받은 온라인 강좌 및 최신 트렌드에 맞는 커리큘럼 구성 등 자율성 확대, 불교대학 입학 동기부여를 위한 사찰 문화해설자격증 발급 등도 함께 담겼다.

특히 불교대학 학장회의에서 제기된 96시간의 수업시간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영해 64시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또 수련회 · 성지순례 · 철야정진 · 특강과 봉사활동 등을 16시간만 인정한 데에서 16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신행경험도 교육으로 인정토록 했다.

포교원 측은 "신도전문교육기관은 신도 교육을 담당하지만, 사찰 신도 유입을 유도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변화하는 사찰 현실을 반영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사찰로 신도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교대학 운영에 관한 제도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교대학 운영의 어려움으로 휴교나 폐교를 고민하는 사찰들이 운영 규제 완화와 자격부여 등을 바탕으로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신도 교화에 관한 령' '신도단체 등록 및 관리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두 개정안은 포교신도단체 신도에 대한 교화, 징계를 비롯해 임원 · 회원 보고 의무화 등 관리 강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11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의견제출 기간은 11월 4일까지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